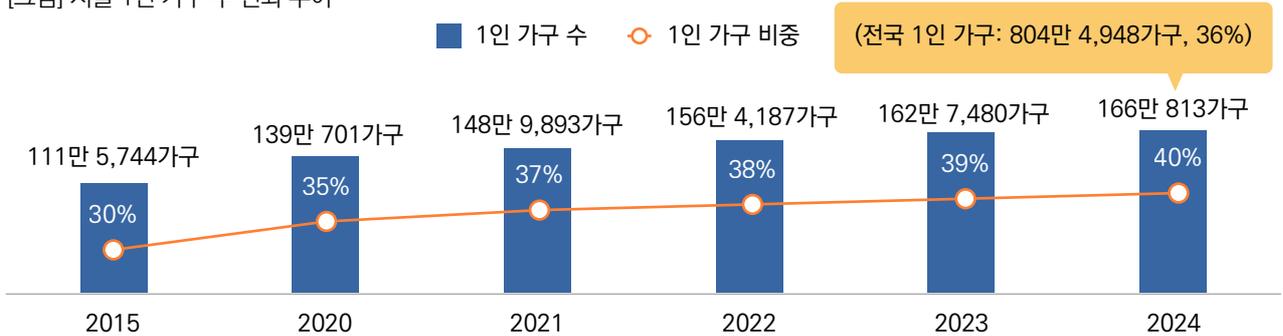




[서울시민의 가족 형태 변화] 서울 1인 가구, 5집 중 2집(40%)!

- 최근 서울시는 '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 변화' 보고서를 발표했다. 서울 가족의 변화상을 가구 중심으로 일부 살펴본다.
- 먼저 서울 1인 가구는 2015년 111만 5,744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66만 813가구로 늘었다. 서울 전체 일반가구의 40% 수준으로,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1인 가구(36%)보다 높았다.

[그림] 서울 1인 가구 수 변화 추이



※출처 : 서울특별시,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, 2025.09.15.

서울 집, 10가구 중 3가구는 노인(65세 이상) 거주!

-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2024년 약 126만 가구로, 전체 가구의 3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서울 내 10집 중 3집꼴(30%)로 노인이 사는 셈이다.

[그림] 서울의 노인가구(65세 이상)* 수 변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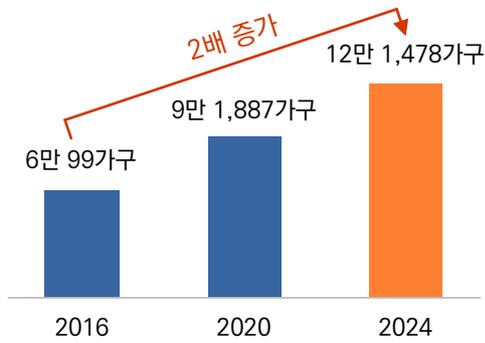
※출처 : 서울특별시,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, 2025.09.15.

*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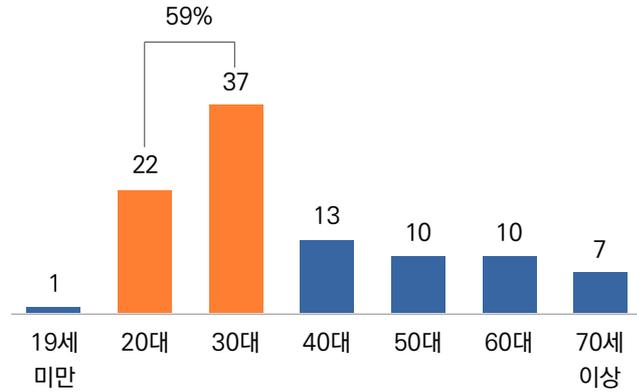
친구·직장동료 등 가족 아닌 ‘비친족 가구’, 지난 8년 새 2배 증가

- 2024년 현재 서울의 비친족가구(사실혼, 친구/동료 동거 등)*는 12만 1,478가구였으며, 이는 8년 전인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.
- 한편, 비친족가구는 주로 20~30대 젊은 층으로, 전체 10명 중 6명(59%)에 달했다.

[그림] 서울의 비친족 가구 수 추이



[그림] 서울의 비친족 가구 연령별 분포 (2024, %)



※출처 : 서울특별시,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보고서, 2025.09.15.

*비친족가구는 '혼인·혈연·입양 등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닌 두 명 이상의 성인이 가구 원수 5인 이하로 동거하며 생계 또는 주거를 공유하는 가구'를 의미함. 이 범위에 는 동거커플, 사실혼 관계, 친구·동료·지인 동거 등이 포함